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지원 총력

전북교육청,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실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업 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 학업 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중단 학생들

의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학교부적응, 다문화·탈북, 저소득층, 장애 등 교육소외계층 학업중단 학생이 학습 중에 있는 미인가 전일제 교육시설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도교육청 인성건강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3개 내외의 기관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단, 교육의 중립성 위반·고액의 부담금 징수시설·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시설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시설에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 및 기자재 구입비, 안전시설 개선비 및 안전교육 운영비 등의 교육활동 경비가 지원된다.

반면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홍보비 등은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만큼 예산집행이 불가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2만7000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학교 밖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에게 대안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수강생 모집

관련 종사자 누구나 지원 가능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이 2019년 제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6일까지며, 교육생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노동 및 노사관계 일반, 인적자원관리 실무, 지역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해 강의와 사례발표, 토론, 국내·외 연수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일정은 전반기 18주, 하반기 15주 등 총 33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노동조합, 인사 노무 관리자 등 노사관계 관련 분야 종사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북대는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공모 심사과정을 거쳐 노사관계전문가 육성을 수행할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지난 5년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선진적 노사관계 문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노사관계 전문가 150여명을 배출해 왔다.

이 과정은 국내외 노동 분야 연구자와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 전국 규모의 노사단체 교수 임원 등 각계의 최고 권위의 교수진으로 운영된다.

채연주 주임교수(전북대 경영학과)는 “노와 사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이 함께하는 본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 노사관계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학지원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http://www.nosa.or.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노사관계전문가육성사업단(063-270-2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20일 수퍼스타홀에서 내외 귀빈, 학생과 그 가족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새 출발을 응원하며, 사회를 활기차게 변화시키길”

전주대 학위 수여식 개최... 학사 1936명, 석·박사 117명 등 총 2053명 학위 수여

전주대학교는 20일 수퍼스타홀에서 이호인 총장, 임정업 총동문회장, 31사단장 소영민 소장 등 비롯한 내외 귀빈, 학생과 그 가족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서 학사 1,936명, 석사 93명, 박사 24명 등 총 2,053명이 학위를 수여받게 됐다. 이 중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육필훈 학생(신학과)과, 학사과정 강새미(작업치료학과)학생이 이사장상을 받았으며,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황광연 학생(교육학과)과, 학사과정 소재은 학생(일본언어문화학과)이 총장상을 수상했다. 총동문회장은 송

여민 학생(가정교육과)의 3명이, 공로상은 이성국 학생(경찰행정학과)의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외에도 학업 및 교내외의 각 분야에서 대학을 빛낸 451명의 학생들에게 총장이 상장을 수여했다.

전주대는 1964년 5개 학과로 출발해 55년 동안 질적·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서 현재 8개 단과대학 60개 학과, 8개 대학원에 재학생 1만 1천명, 졸업생 7만 여 명 규모의 전북지역 대표 사립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호인 총장은 “자신만의 특별한 색깔을 찾고,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

늘 학위수여를 받은 전주대 인재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사회를 새롭고 활기차게 변화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졸업식에서 만학도인 부동산학과 송명수(69세) 씨가 박사 학위를 취득해 눈길을 끌었다.

송 씨는 “전주대에서 공부할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앞으로도 배운 학문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송 씨는 지난 12일 전주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써달라며 1,000만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가치관 확립”

전북교육청, 학생기자단 활동보고회 개최... 공식 활동 마무리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 제9기 학생기자단이 활동보고회와 함께 2018년도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9기 학생기자단은 20일 오후 3시 도교육청 북카페 징검다리에서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 II’라는 주제로 활동보고회를 열었다.

사막에 샘이 있어 아름답듯 전북 학생기자단은 꿈과 가능성, 잠재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내용으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의견교환과 개선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활동보고회는 ▲제9기 학생기자단 활동 돌아보기 ▲우수기자상 시상 ▲오중호기자 특강(KBS) ▲날말 퍼즐 풀기 ▲교육감과 포토타임 등으로 한 해 동안 수고한 학생 기자들을 격려했다.

도내 초·중·고 학생 78명으로 구성된 제9기 학생기자단은 지난 1년 동안 학생기자단 카페를 통해 취재와 기사를 작성해왔다. 초·중·고등 기

사교실 운영, 도교육청 SNS 홍보콘텐츠로 기사 활용, 학생기자단 현장취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강화와 다채로운 학교소식을 알리는데 힘써왔다.

올해는 특히 학생기자단 급별 담임제도를 신설해 초·중·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기사첨삭 지도를 실시해 흥미와 집중도가 향상되었다. 주제별 미니 잡지를 모뎀별로 완성하고 인터뷰 기법과 신문, 방송,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으며 학생 기자가 올린 기사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통해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기자단이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 취재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왔다”며 “앞으로도 학생기자단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2020학년도 개교예정 3곳 교명 공모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2020학년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가칭)봉암초등학교 등 3개교의 교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대상교는 (가칭)봉암초등학교(총 47학급 규모, 덕진구 예코시티에 위치), (가칭)효천초등학교(총 44학급 규모,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 (가칭)화정유치원(총 10학급 규모, 덕진구 예코시티에 위치) 등 총 3개교다. 신설학교 교명 공모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전라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3월 8일까지다.

교명은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이름, 부르기 쉽고 친근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 타 교명과 중복되거나 혼동이 되지 않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를 원하는 도민은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우편 또는 인편,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공모기간을 통해 접수된 교명을 대상으로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명을 선정하며, 선정된 교명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중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69명 배출

전주대학교(이호인 총장)가 2019년도 전국시·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중등특수교육과 16명을 비롯해 총 6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학과별로는 가정교육과 9명, 과학교육과 2명, 국어교육과 7명, 수학교육과 7명, 영어교육과 2명, 중등특수교육과 16명, 한문교육과 4명, 일반대학 기타 학과 22명이다.

특히 전주대는 이번 임용시험에서 중등특수교육과 한승훈 졸업생이 전북지역 수석을 차지하고 수학교육과 백설아 졸업생이 충남지역에서 해당

교과 합격자 수석을 차지했다.

전주대 사범대학은 인성과 실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각종 장학혜택과 각 분야별 전공 분야와 교육학 전문가들을 초빙해 특강을 열고 있으며, 수업실연 컨설팅, 예비 교사 아카데미 등을 운영, 방학 기간에도 교수와 학생이 서로 동행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임용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61명의 합격자를 배출한데 이어 올해 69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